



湖南新聞



1946년 3월 창간 제 2414호

이메일 : ihonam@naver.com

홈페이지

NAVER

호남신문

검색

2017년 12월 21일 (음력 11월 4일) 목요일

‘전남 25개 섬, 사실상 육지’ 사각지대 같하다

명사십리해수욕장으로 유명한 완도·신지도 등 전남지역 25개 섬이 사실상 육지로 간주되면서 앞으로 최소한의 주민생활 지원 등이 사라지게 됐다.

이를 막기 위해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기획재정부의 반대와 의원들간 이견으로 연내 처리는 무산됐다.

20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국 섬의 66%를 차지하는 전남지역에는 15개 시·군에

연륙·연도교 건설 10년 지난 섬 육지 간주

내년부터 국가지원 대상서 원천적 제외돼

기재부 반대·의원간 이견으로 개정안 표류

2165개 섬이 있으며 이 가운데 연륙·연도

교가 건설돼 10년이 지난 섬은 완도 고금도·신지도·양산도, 장흥 노력도 고흥지족도·백일도·옥금도 등 25곳이다.

이 섬들은 2018년부터 2027년까지 추진하는 제4차 도서종합개발계획에서 빠져 국가 개발 관리 대상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됐다.

전남 25개 등 전국적으로 45곳의 섬이 연륙이 10년 경과돼 ‘섬 아닌 섬’, 사실상 육지가 된 셈이다.

이에 따라 이들 섬은 내년부터 국가지원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제외되고 일반육지와 동일시된다.

이를 막기 위해 국민의당 운영의원(해남·완도·진도)이 대표 발의한 ‘도서개발촉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올해 처리는 불건넜다.

이 개정안은 연륙 10년이 지나면 지원대

상에서 제외되는 도서를 관리대상도서로 지정해 최소한의 주민생활지원을 지속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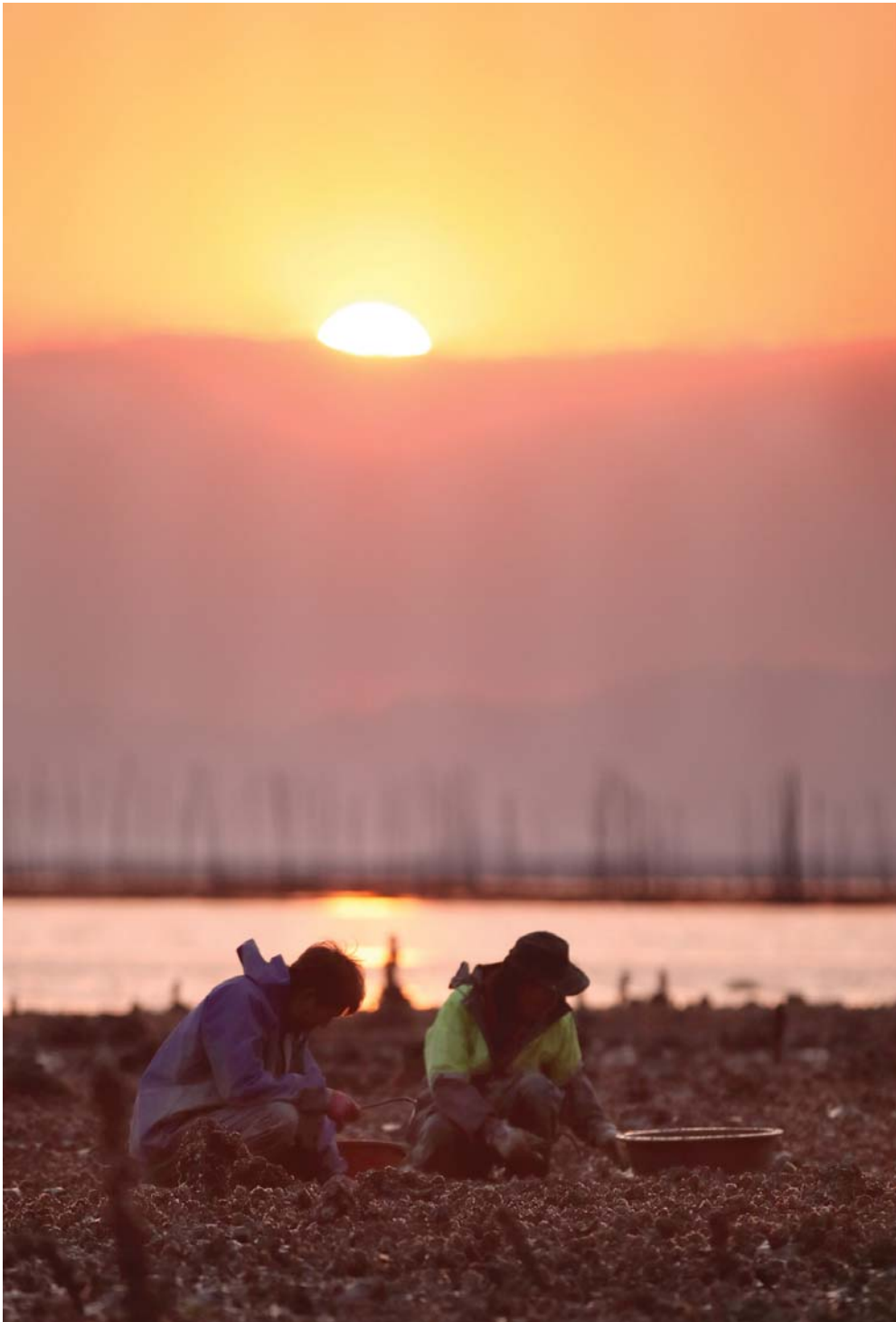
윤 의원과 전남도는 수년째 이들 섬의 교통여건은 나아졌지만, 어업기반시설이나 재해예방시설, 식수공급시설, 연륙교 개·보수 비용 등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며 법 개정의 당위성을 주장했지만, 결국 돈 때문에 길이 막혔다.

개정안이 표류하고 있는 것은 기획재정부의 반대가 가장 큰 요인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섬을 지역구로 끼고 있는 의원들과 그렇지 못한 의원들간 이견으로 법 개정안이 한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섬지역의 생활기반시설 등을 개선하기 위해 제정된 도서개발촉진법이 30여년만에 개정이 추진되고 있지만, 돈을 쫓는 기재부의 반대가 크고 섬을 지역구로 가진 의원들과 그렇지 못한 의원들간 ‘동상이몽’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면서 “내년에도 법개정이 이뤄지지 불투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정환 기자



노을속 석화(石花)수확 한파가 이어진 지난 19일 아름다운 일몰장소에 잘 알려진 강진군 대구면 남호마을 비닷가에서 자연산 석화(石花, 굴)를 수확하는 어부와 서산너머 구름사이로 지는 해가 어우러져 차분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함평군 살림 잘했네” 채무 제로 선언

추경서 지방채 110억원 완납 예정...이자 11억 절감

함평군이 올해 연말까지 지방채 전액을 상환함으로써 부채 제로(Zero) 시대를 맞게 됐다.

20일 함평군의회에 상정된 제3회 추경예산안에 따르면 함평군은 지방채를 올해 안에 조기 상환할 수 있게 됐다.

상환내역은 민선 5기 출범시 인수한 지방채 158억원 중 128억원을 상환하고 남은 잔액 30억원과 통합평산단 조성사업으로 발행한 260억원 중 180억원을 상환하고 남은 80억원 등 총 110억원이다.

남비성 예산을 절감하고 효율적인 재정을 운용한 결과 2년 연속 앞뺄살림 전국 최우수군에 선정돼 받은 교부세 인센티브 재원으로 지방채를 상환해 의미를 더했다.

지방채 조기상환은 안병호 함평군수의 민선 5·6기 군정철하인 실사구시에 기반한 효율적인 재정운영 성과가 반영된 결과로 평가되고 있다.

지방채는 당초 2024년까지 연차적으로

상환할 계획이었으나 이를 앞당겨 상환하면서 지급해야 할 이자비용 11억원을 절감하게 됐다.

함평군은 지방채 조기상환으로 절감한 예산을 산업인프라 확충, 농축수산업 경쟁력 강화, 보건복지 통합서비스 제공 등 산업도시의 기반을 다지고 주민소속을 높이는 데 사용할 방침이다.

안 군수는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 지역발전과 주민소득 증대를 위한 주요 시책사업을 확대 추진하면서도 지방채를 조기에 상환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군민들의 삶을 더욱 윤택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오는 22일 추경예산안이 함평군의회에서 의결되면 함평군의 한해 살림규모는 4011억원으로 올해 사상 처음으로 4000억원대를 돌파한다. 이는 민선 5기 출범이후 1553억원(38.10%)이 늘어난 금액이다.

함평=김광춘 기자



업보

국가보훈처장 피우진은 19일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주요 비위행위가 발생했음에도 0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박승춘 당시 보훈처장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보훈처는 박 전 처장 재임 시절 이념 편향 논란을 일으켰던 나라사랑교육업무와 나라사랑공제회, (재)함께하는 나라사랑에 대한 감사를 통해 이같은 혐의를 확인했다고 발표하며 박 전 처장과 최원근 전 처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보훈처에 따르면 이들의 위법 혐의 사항은 △호국보훈 교육자료집 DVD사건, △나라사랑재단 비위사건, △나라사랑공제회 비위사건, △고양계 전우회와 △상이군경회 비위사건으로 총 5건이다. 박 전 보훈처장은 대표적인 보수인물로 5.18행사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줄곧 거부했다. 관련 인사들의 숙제를 상상해 본다.

조인호·자료사진=뉴스1



박지원



박승춘



시민들

진도개 테마파크 Jindo Dog Theme Park
천연기념물 제53호

우리나라 토종개, 진도개의 공연과 경주를 보면서 진도개의 용맹함과 주인에 대한 충직함을 느끼며 진도개에게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진도개 공연 · 경주안내

운영기간	3월 1일~12월 31일 / 관 람 료 : 무료		
구 분	평일(월~금)	토요일	일요일
장 소	평일공연장	주말공연장, 경주장	
공 연	10:00, 15:00	13:00	
경 주	-	13:20	
어 질 리	-		
진 행	진도개사업소 훈련사	진도개 공연단 진도개 경주단	

오시는 길!

도로명주소 | 전남 진도군 진도를 성죽길 30
내 비 주 소 | 진도개테마파크
진도개사업소 | 061-540-6306

자카용 | 서해안고속도로 서울-당진-군산-죽림JC-서명양IC 경유 남해안고속도로 부산-진주-통산JC-서명양IC 경유
KTX, SRT | 서울-목포(2시간 30분 소요) 1일 30회
수서-목포(2시간 30분 소요) 1일 9회
※ 목포-진도 버스 이용
버스 | 서울-진도(5시간 소요) 1일 4회
목포-진도(1시간 소요) 1일 22회